

2023학년도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대상작」

제 목	현장실습 with POSCO		
성 명	문*형	학 번	20184052
학 과	건축학부	실습기관	(주)포스코이앤씨

1. 현장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 및 계획

처음 제가 실습을 가고 싶었던 곳은 서울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건설에서 현장실습을 뽑고 있어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저희 과는 대부분 진로 방향이 도면을 치고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 사무소가 주 진로 방향입니다. 하지만 간혹 설계보다는 다른 쪽인 시공이나 구조사무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진로의 폭을 좀 더 넓히고자 시공사이 포스코 건설로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실습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중 도면으로만 보던 재료들이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할 때에는 구조나 마감재료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않고 설계하다보니 결국에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이 되는 경우박은숙2672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감각 뿐만아니라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기 위해 이번 실습에서 재료나 시공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 회사 집단안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잘 따라 할 수 있을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개라도 배울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시공중인 철골 프레임을 가지고 제가 직접 전공과목에서 설계할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2. 실습기관에서의 업무 내용 및 현장 적응 노력

포스코 건설은 포스코 e&c로 발주처에서 의뢰를 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입니다. 포스코 e&c는 포스코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실시도면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공사가 잘 진행되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모든일을 맡아 진행하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현장 파악이었습니다. 약 5일간의 시간동안 제 담당 사수분과 함께 현장과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며 어떤일을 해야할지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장파트와 사무실파트입니다. 현장에서는 자재파악, 안전관리, 검측, 검수, 공사현장 정리 등을 하고 사무실에서는 금일 인원, 장비, 자재를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또한 자재검수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고 각종 도면을 보고 필요한 도면을 체크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입니다. 사무실과 현장이 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잘 받아야합니다. 또한 메모입니다. 처음 하는 일에 있어서 적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였습니다. 아마 2달동안 포스트잇 500장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총 8주에 걸쳐 제가 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주차

1일차에는 포스코 건설 현장 사무실에 대해 조직도 및 현장 분위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용 방법 및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사항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 2일차 부터는 사수님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안전사항에 대해 경험 해보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꼭 안전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하며 많은 작업들이 한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안전을 꼭 인식하여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일차가 되어서는 근로자 안전 체크와 자재검수, 검측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TBM 시간에 근로자의 장비 상태 확인하며 자재검수 때에는 물건의 잘 들어왔는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증거사진을 찍어두고, 검측에서는 먹검측을 하면서 벽의 위치가 정확한지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표를 보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퇴근 전 준공진행현황을 확인하여 3D 도면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주차

2주차가 되어서 점차 많은 건물들이 변화 하였습니다. 아직 시공과 관련된 수업을 듣지는 못했지만 팀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대리님이 작업마다 자세히 알려주며 배웠으며 전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빨리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총 8가지입니다. 철골, 동바리, 철골 내화, 설비, 조적, 금속, 외장, 수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업체들이 어딜 어떻게 공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점차 하나씩 파트별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 파트는 외부에서 하는 일보다 내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작성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재검수요청서, 자재검측요청서, 매일 보고하는 업체별 작업내용 등 현장 어디에서나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처음에는 배워가는 입장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번주에 했던 검측중에서 내화검측과, 패드검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는 내화검측을 어떻게 하는지 패드검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는게 없었으며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배워나갔고 지금은 시공사에서는 혼자 감리단분과 같이 검측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중간에 검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잘못됨이 건물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주차

3주째 되면서 많은 작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먼저 진행되고 그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씩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1주째 되던 날을 생각해보면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숙련도가 엄청 늘었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며 아직까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배워야할 것 같았습니다. 현재 실습기간동안 지어질 건물들을 보면 절반 이상은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왔을때는 뼈대밖에 없던 건물들이 외부 벽체가 생기고 창문을 달 정도에 진행 상태를 보면 3주가 금방 지나간것 같았습니다. 그것보다 이번 주는 사수의 부재로 제가 해야 할 업무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틀동안은 매우 벅찬 업무였습니다. 하나하나 처음 해본 것들이며 배우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도 언젠가는 제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며 이틀동안 해나아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비가오는 날이라 오전에는 TBM을 진행하지 않았고 비로 인해 많은 작업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건축시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들은 비가 오는데 무리하게 작업하는 작업자를 멈추고 필요 없는 전선들이 비에 젖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4주차

4주째가 되는 날이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는것 같았는데 벌써 건물의 모습 거의 드러나고 있으며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했던 주였고 검측, 검수, 회의 등 많은 것들을 하였으며 이제 시공현장업무의 흐름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업무를 봐주시는 사수님이 이번주는 출근을 안하셔서 일이 갑자기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장설명회였습니다. 현장 설명회는 다음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각 팀의 팀장님들이 오셔서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궁금했던게 풀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설연휴여서 마음이 현장에 있지 않고 이미 연휴를 즐기듯한 느낌이었지만 마음 바로잡고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한 달이 되어가는 만큼 처음 했던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해야 할 일을 적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5주,6주,7주 그리고 마지막 8주차

마지막 주로 모든 실습과 관련된 일들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먼저 처음 왔을때부터 안전교육부터 시작하고 모든 현장에서는 위 아래 양쪽을 다 살피며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이 익숙해지면 안전 또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처음 공사감리자로서 시공현장에서의 일을 보면 작업이 잘되었는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실히 첫 주 보다 지금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들이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 공정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설계를 하다가 이 시공현장을 보면 많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도면 상대로 하는 것이 시공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뀌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도면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는 현장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어김없이 현장에서 자재검수, 검측, 청소, 안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소감(배운점, 성과, 보람 등)

먼저 공사현장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장비들과 어떤작업자가 일을 하는지, 공사가 진행될 때 어떤 것을 검측하고, 검수하고, 확인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현장실습인 이 공사 현장을 갔을 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배우고 직접해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배운 것은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실습생이지만 막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잘 챙겨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반대로 제가 열

심히 해야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과해질 수 있어 그 분위기를 맞춰 가는게 저의 첫 배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 현장입니다. 제가 간 곳은 시공사이지만 그 시공사 밑으로 각 파트별 협력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협력업체들이 어떤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지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중요성입니다. 많은 업체들에서 많은 작업자들이 같은 공간안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 지면서 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안전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서 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변 작업자들의 안전도 챙겨 줄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보람 느꼈던 것은 완성된 건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올라가기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취업 혹은 건축에서 있을 시간에서 건물이 완성된 것을 보는 것은 가장 뿌듯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포스코건설로 현장실습을 가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것은 설계입니다. 각종 재료들을 보고 시공과정을 보면서 설계할 때 이부분은 이렇게 시공되겠구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 과목중 시공과 재료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진로탐색/취업과의 연계 경험담 및 취업 성공을 위한 각오

이번 현장실습을 다녀와서 비슷한 일인 공간혁신워크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건축학부 시간강사로 제 설계 전공과목을 가르쳐 주던 건축사사무소 소장님과 여러 고등학교와 연계하면서 진행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프로젝트는 여러 재료와 어떤 공간을 창출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 어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할지 정해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음을 차단할 때 필요한 재료,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야 할 때 쓰이는 재료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실습을 갔다와서 제 취업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건축학부를 입학했을 때에는 건축에 대한 많은 길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건축을 하면서 설계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선배들이 건축사 사무소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진로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포스코건설인 시공사로 가면서 시공쪽으로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곳에서 종사하게신 팀장님, 차장님, 사수님 그리고 주변 분들을 통해 건축을 배우면 그 중 많은 곳들로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로 방향이 아닌 여러 곳으로 탐색하여 저에게 맞는 곳으로 취업을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싶은곳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취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하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떤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건축 관련 일에 종사해서 최고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진



<콘크리트 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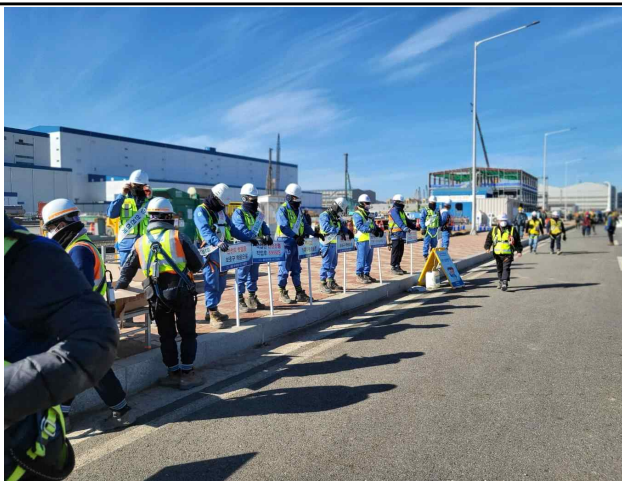
<내화 검측>



<장비운영시 안전관리체크>



<자재 검수>



<안전의 날>



<현장설명회 참여>